

칼럼

김수중 뉴스1 코본



## 아마존은 왜 나에게 중요한가

오늘날 2개의 '아마존'이 세계적 뉴스를 만들어 낸다. 하나는 25년 전 전자 책방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시가총액 1조 달러로 성장한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아마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미 대륙에 있는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이다. 기업 '아마존'은 몸집을 무시무시하게 불려가면서 뉴스를 만들고, 열대우림 '아마존'은 산물로 심각하게 면적이 줄어들면서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정상회의(Earth Summit) 취재 여행을 갔다가 며칠 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보낸 적이 있다. 감기에 걸려 콧물 콧물 기침을 하는 나를 보더니 현지 안내원이 작은 보트를 타고 잠시 나갔다 돌아왔다. 그는 컵에 담긴 액체를 주며 먹으라고 했다. 레몬즙을 끓인 물에 마늘 몇 조각을 으깨어 만든 '원주민 처방약'이었다. 그 안내원에 의하면 아마존 사람들은 아프거나 다치면 현지의 식물 약재로 치료를 한다는 것이었다.

병원의 처방약 성분 약 7000 종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많은 성분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나온다. 잘 알려진 아스피린, 항암치료제, 키

니넨(말라리아 치료제), 진통제 등이 아마존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제조된다.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물론 잠시 몸살을 누그러뜨리려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아마존 식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아마존은 약재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보다 더 큰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가 숨 쉬는 산소를 공급하고, 지구 기후를 안정시켜 준다.

아마존은 1100개의 지류가 거미줄처럼 퍼져 흐르는 아마존 강과 그 유역의 열대우림을 포함한 거대한 생태 시스템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넓이는 550만<sup>2</sup>로 남한의 55배다. 전 세계 열대우림의 50%가 아마존에 있다. 이곳은 지구 상 생물종의 절반이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生物多樣性)의 보고이며, 나무 종류만 1만6000종이 된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 숫자가 3900억 그루라고 한다. 학자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관측했을 터이니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나무는 그 부피의 70~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 직경 80cm에 키 10m인 참나무 종류는 약 8톤의 수분을 품고 있다. 8톤짜리 물기둥이란 얘기다.

아주 실물적인 상상을 해보자. 아마존 나무 1그루가 평균 1톤의

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아마존에는 1톤짜리 물기둥이 3900억 개가 솟아 있으며 그 물의 양은 3900억 톤이다. 중국 장강(長江)을 막아 만든 세계 최대의 산사 댐 수량의 10배다. 실제로 아마존 생태 시스템이 품은 물은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아마존 강이 대서양으로 쏟아내는 수량은 초당 17만5000 톤이다.

아마존에 있는 3900억 그루 나무의 광합성과 아마존 물 순환이 인류에게 주는 생태적 혜택은 기후의 안정 등 계량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 열대우림은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것을 보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만들어내는 산소는 지구에서 생성되는 전체 산소량의 20%다. 지구를 덮은 공기 성분의 21%가 산소로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없다면 공기 중 산소 함유량은 17%대로 떨어질 것이다. '가이아' 가설로 유명한 영국의 화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공기 중 산소 함유량이 15%이하로 떨어지면 인간은 불을 쓸 수 없고, 25% 이상 올라가면 이 세상 숲은 모두 타서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살든 뉴욕에 살든, 사람은 아마존 열대우림에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마존 열대우림이 무서운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소를 기르고 콩을 재배하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일부러 산불을 놓아 산림을 불태운다. 이렇게 해서 3년마다 남한 땅 넓이만큼 숲이 사라진다니 무섭다.

올해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새 취임하면서 아마존 보전의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말까지 보고된 올해 산불 발생은 4만 건이 넘었다. 숲을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이 줄어든다. 즉 지구온난화가 촉진된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기 파괴(self-destruction) 가설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과 파괴가 어느 균형점(tipping point)을 지나면 숲은 자기회복 능력을 잃고 건조한 사바나로 급속히 변해버린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 지점을 아마존 열대우림이 개발되기 전 원래 상태의 20~25% 파괴될 때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아마존은 원래 상태에서 19.3%가 파괴됐다고 한다. 과학자의 가설이 맞다면 아마존의 자기파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인들도 아마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기업 '아마존'은 망해 없어져도 자본주의 문명이 그 상처를 곧 치유하겠지만, 열대우림 '아마존'이 없어지면 인류 전체가 생존의 위협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社說

### '나주시민 지원위' 기대 크다

세계 수준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세워지는 한전공대 설립 지원을 위한 민간 주도의 '나주시민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지원위는 한전공대 설립과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민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한전공대와 연계 대학 간 공동연구 및 협력, 기업 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지원위는 △총괄지원 △대학설립 지원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 3개 분과로 세분화해 활동할 방침이다.

총괄지원분과는 한전공대 설립 당위성 홍보,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대학설립 지원분과는 대학설립·운영 관련 법령제·개정 요청 등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한 지원 역할을 맡는다.

클러스터 조성 지원분과는 연구소 및 기업유치, 대형연구시설 중장기 구축계획의 국가정책 반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위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59명, 고문 20명, 읍·면·동 지원단 40명 등 총 119명으로 꾸려졌다.

공동위원장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이진철 동신대학교수, 부위원장은 문채주 에너지밸리산업융합원장, 여성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이 각각 맡는다.

한전공대는 지난 1월 유치 확정 후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법인 설립, 법제·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데 2022년 3월 정상개교까지 지원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랑의료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 화재대피요령 숙지하자

1년중 가장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차가운 계절풍이 불고 습도도 낮아 주의의 물체들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놓이게 되며 그에 따라 난방 기구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비

무환(有備無患)이겠지만 언제나 예외의 경우는 있다. 이때 대피요령을 숙지해서 위급시 실행하자.

화재 시에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신속·침착하게 행동하여 위험으로부터 대피해야 한다.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

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쓰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

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간헐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리고 낮은 자세로 엎드린다.

특히, 구조를 모르는 집에 머무를 때는 대피로를 숙지하고 대피방법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b>호남신문</b>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고국 (062) 224-5800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팩스 (062) 222-5547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프렌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